

아기자기한 매력 넘치는 예술 사랑방

광주 산수동에 문예 '손길 갤러리'

조각보 장인 이남희씨 4월에 오픈

"소소한 즐거움 나눌수 있는 공간"

9일까지 이남희 작가 7번째 개인전

광주산수도서관 맞은편 골목길에 작은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1970년대 한옥을 개조해 만든 '손길 갤러리'다.

조각보 장인 소세 이남희씨가 지난 4월 문을 연 공간은 아기자기한 매력이 가득하다. 좀처럼 전시 공간을 갖기 어려운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전시하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할 생각이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만나는 전시 공간은 그리 넓지는 않지만 '작가의 마인드'로 인테리어를 한 터라 구석구석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고 '정형화되지 않은' 매력 덕에 오히려 재미있다.

"의상, 조각보, 웨딩 메이크업 등 다채로운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제 작품을 잘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을 늘 꿈꿨죠. 다양한 스타일로 전시가 가능해 다른 장르의 작가들도 와서 신선하고 재미있는 공간이라고 말들을 하네요. 갤러리는 틀에 갇히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곳



광주 산수도서관 인근에 문을 연 '손길갤러리'는 한옥을 개조한 공간으로 아기자기한 매력이 넘친다.



전시회에서 만나는 이남희 작가 작품들.

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꼭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취미 생활로 공예 작업 등을 해오는 이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마음을 전하는 '소소한 행복이 넘치는 곳'을 꿈꾼다.

"아마추어들에게는 갤러리 문턱이 참 높아요. 작가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취미로 뜨개질을 배우는데 누군가를 위해 작품을 제작했다면 그 작품들을 단 며칠간만이라도 전시하고 사람들을 초대해 전달식을 갖고 소소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음식을 나누며 작은 파티를 열어도 좋구요."

공간 가운데에는 긴 탁자가 놓여 있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뤄진다. 각종 차도 마련해 뒤 자유롭게 차담을 나누며 소모임을 즐길 수 있다. 현재 이곳에서는 펠트 동호인 모임, 바느질 모임 등이 열리고 있다.

전통 가옥 구조를 그대로 살린 갤러리에는 작은 방을 하나 마련했고 아랍인 등 특정 국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게스트하우스로도 사용할 생각이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후 서양화가 김미숙 작가 초대전과 박순천-이남희 2인전을 열었고 오는 9월까지 이남희 작가가 '전통을 잇다'를 주제로 7번째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름다운 조각보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규방 공예 작품을 선보인다. 다음 전시는 뜨개질 작가 김선화의 '실로 엮은 동화 세상' (13일~10월4일)이다. 일요일 휴무. 문의 062-264-874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기획자 그룹 '애니웨어' 세계 청년 작가 10명 초청전

4일~29일 양림동 아트폴리곤... 개막 파티도

광주의 기획자 그룹 '애니웨어'가 각국의 젊은 작가들을 초청한 전시회를 마련한다. 4일부터 29일까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인근 아트폴리곤에서 'Be Water My Friend(물이 되거나 친구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는 7일 개막하는 2018 광주비엔날레 기념전으로 마련됐다.

애니웨어 멤버는 커뮤니케이션, 공간 구성, 창작 컨텐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젊은 기획자들로 건축, 문학, 미술을 공부한 세 명의 기획자(박하나, 임리원, 이지영)와 미술 이론을 전공한 김윤하가 함께 문체 만들었다.

기획자들은 이번 전시에 김설아, 나지수, 민경희, 서영기, 미스엠마(Missemma), 이혜리, 전현선, 최재서, 허건, 로빈 고드(Robin Godde) 등 한국과 프랑스·남시 출신의 청년 작가들 10명을 초청해 조각, 영상,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전현선 작 '욕심의 뿔들과 공'



전시 제목 'Be Water My Friend(물이 되거나 친구여)'는 1970년대 무도 철학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화배우 부르스 리가 답한 내용에서 착안했고, 작가들은 이 주제에 맞게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일인 4일 오후 6시 40분 전시장에서는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투어가 열리며 DJ 셀피의 디제이 파티와 다과가 준비된다. 문의 010-6602-004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소아미술관 양재영 작가 초대전 'NEW-TRO'

5일~10월 7일...10월 6일 버블파티

도라에몽, 마징가 제트, 키터, 스누피... 추억속에 남아 있는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화순 소아 미술관이 5일부터 10월7일까지 양재영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전시 주제 '뉴-트로(NEW-TRO)'는 새로움을 뜻하는 'NEW'와 복고 지향적 스타일을 뜻하는 'RETRO'의 합성어로 현대에 살고 있지만 아날로그 감성을 지향하는 오늘날 우리의 욕망을 반영하는 신조어다.

전시에 등장하는 각종 캐릭터들은 밝은 색채와 단순화된 이미지가 특징이다. 사랑하는 장미꽃과 포즈를 취한 어린왕자, 전통 12지신상으로 변한 스누피, 비틀스의 '노란 잠수함' 등 다양한 작품들은 유년 시절의 기억을 소환하며 즐거움을 준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을 졸업한 양 작가는 수차례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 공간에서도 환자과 보호자를 만날 계획이다.



'장미와 어린왕자'

또 오는 10월 6일 오후 1시~5시에는 '2018 미술주간' 연계 행사로 '소아 미술 버블 파티'가 미술관 공원에서 열린다. '버블 공연(버블 타이거), 마술 공연(일루전), 클래식 연주(다사랑 관악 앙상블),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무료 공연과 무료 체험이 준비돼 있다. 문의 061-371-858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문화상품 디자인 공모전...김경조씨 최우수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제1회 '2018 ACC 문화상품 디자인 공모전' 심사결과를 지난 30일 발표했다.

ACC가 일반인 참여를 기반으로 문화상품 디자인의 참신한 아이디어 및 다양화를 위해 추진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81점의 작품이 응모됐다. 15세의 최연소 참가자부터 독일,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2차에 걸쳐 열린 전문가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김경조씨의 'PLAY ACC'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독일 출신 Philipp Schaake의 'Light Beams', 정 술의 '함께'가 선정됐다. 장려상 수상자는 정성기·정다운·강은선·임미란씨 등 4명이며 21점이 입선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심사위원 전원 합의하에 '적격자 없음' 결정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시상식은 오는 18일 ACC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수상작들은 올 11월까지 ACC 컬처숍에서 시제품과 함께 전시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



최우수상 김경조 'PLAY ACC'

5일~10월 5일 고흥군 송수권 시문학상 작품 공모

송수권 시인의 문학세계와 시 정신을 기리는 '제4회 고흥군 송수권 시문학상 및 시낭송대회'가 열린다.

고흥군은 5일부터 10월 5일까지 시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작품은 시집 1권(2016년 9월 1일~2018년 8월 31일까지 출간)으로 대한민국 시인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된다. 올해의 남도시인상

과 올해의 젊은시인상은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이 수여된다. 남도시인상은 광주시, 전남·북도에서 활동하는 시인으로 한하며, 젊은 시인상은 등단 10년 이내로 제한한다.

한편 시문학상 및 낭송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홈페이지(www.goheung.go.kr) 또는 고흥군 문화예술과(061-830-6715)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훔플러스 건너편